

# 일본점령하 필리핀에서의 화교의 적응과 저항

이 덕 훈\*

(e-mail :ldukhoon@hanmail.net)

## <목 차>

- |                                 |                             |
|---------------------------------|-----------------------------|
| I. 시작하는 말                       | IV. 일본의 필리핀 점령시의 화교의 현황과 대응 |
| II. 선행연구와 연구범위                  | V. 맺는 말                     |
| III. 일본 점령이전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의 등장과 적응 |                             |

키워드 : 日本占領下のフィリピン(Japanese Occupation), 米国の植民地 (1898-1946) の時代(U.S. colonization (1898-1946)), フィリピン人(Filipino), 華僑(huaqiao), 辛亥革命(Xinhai Revolution), 孫文(Sun Yat-sen), 抗日運動(movement against Japan),

## I. 시작하는 말

일본이 1942년 1월 2일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 필리핀은 이미 중주국 미국에 의해 1935년에 발족하여 1946년의 완전독립이 약속된 자치 식민지 Philippine Commonwealth(1935년 발족)가 가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를 서양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일본의 大東亞共榮圈의 주장은 동남아 국가 중 필리핀에서는 전혀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일본군이 마닐라를 점령하자마자 마누엘 · 케손대통령(Manuel Quezon)과 각료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망명정부를 수립하자 필리핀 전 국토에서 필리핀 망명 정부에 충성을 맹세하는 격렬한 항일 게릴라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다.

일본 정부의 표면상의 방침은,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 의존의 「과거의 청산」과 「태평양전쟁의 완수」로의 적극적 협력을 독립 부여의 조건으로서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의 점령 통치에서는 코먼웰스(commonwealth :미국 연방자치 정부)를 지탱해 온 엘리트의 지배를 보존시킬 수 밖에 없었다. 1942년 1월 23일 일본군에 의해 케손 대통령의 총무처장관이었던 호레 발가스(Jorge Vargas)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위원회가 발족하여 1943년 10월14일에 호세 라우렐 (José Paciano Laurel)를 대통령으로 하는 필리핀 공화국이 독립하였다.

독립한 필리핀 제2공화국(Second Philippine Republic)의 설립에는 헌법이 필요했는데 필리핀헌법의 기초가 되어 있는 미국식 사교를 시정하여 일본식사교를 포함한 아시아적 성격을 포함하였다고 보고 있다.<sup>1)</sup>

일본점령기(1942년-1945년)의 필리핀은 불과 3년 반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스페인의 식민지시기(1517-1898년) 미국식민지 시기(1898-1946년)보다도 전쟁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었고 필리핀인에게 더욱 더 필리핀의 독립을 일깨워준 시기였다.

실제로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물적, 인적피해를 받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버마의 경우와 달리 일본 점령 후 독립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해 필리핀으로서는 일본점령은 단지 극도의 경제적 피해와 인간으로서 비참한 생활을 준 경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인지 일본점령에 관한 객관적, 역사적 연구는 일본군과 싸운 필리핀인과 미국인의 기록, 즉, 항일 게릴라활동에 관한 연구와 또는 이와 반대로 대일 협력자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한편 필리핀의 이방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던 중국인은 18세기에 가톨릭수용으로 외국인인 아닌 특별한 필리핀인으로서 인정받아 중국계 메스티조(Mestizo de Sangley)가 되어 순수한 중국인의 정착은 사실상 필리핀에서는 불가능하였다. 1850년 이후 쿨리(Coolie)가 대량이민으로 필리핀에 정착하면서

1) 大東亜省『比島獨立実施ノ時期及態樣ニ関スル一考察』(昭和18年5月6日, pp4-5.

2) Lear, Elmer Norton, Collaboration, resistance, and liberation : a study of society and education in Leyte, the Philippines, under Japanese occup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ries publication, 3358, University Microfilms, [c1952]

중국인이 정착하게 되었으나 이들의 정체성은 중국인보다는 福建人을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孫文의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中華民國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해외교포란 뜻을 가진 華僑가 되었다.

1898년 미서전쟁(美西戰爭)의 결과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02년 미국의 중국인 배척(排斥)법은 미국식민지하의 필리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미국식민지하의 필리핀에서는 화교는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미국식민지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들의 연구는 오직 경제적 부분만 강조되었고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들의 연구는 정치적인 면이 강조되다보니 정확한 화교사회의 현황과 적응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 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서의 화교가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 하였을 때의 적응과 저항의 움직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범위와 방법 그리고 일본의 필리핀 점령과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일본점령이전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의 등장과 적응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일본의 필리핀점령기의 화교의 현황과 대응에 대해 분석하고 제5장의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맺고자 한다.

## Ⅱ.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 1). 일본의 필리핀 점령에 관한 연구

일본점령기의 필리핀의 초기의 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에 소라리노(Rafaelita Soriano)가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 넓게 펼쳐진 선전작전에 초점을 두어 경제, 종교, 정치, 문화에 관해 이루어진 선전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군의 선전실패, 나아가서는 점령이 실패로 끝난 것은 일본군이 필리핀인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점, 또한 일본군의 우월감, 잔인무도함이 필리핀인을 항일전선으로 끌어들이려 군정을 실패로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sup>.

3) Rafaelita Soriano. Japanese Occupation of the Philippi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레이(Elmer Lear)는 일본군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 미군자료를 이용하여 일본점령시기의 레이테지역의 게릴라사회를 취급하여 항일게릴라의 조직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여 의도적인 항일게릴라의 영웅시하고 있다.<sup>4)</sup> 스테인버그(David Steinberg)는 제2차 대전에서의 필리핀에서의 대일협력(Philippine Collaboration in World War II)에서 필리핀 엘리트를 중심으로 스페인 및 미국식민지에서 등장한 과두정치 체제가 일본점령기는 물론, 전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과 과 엘리트의 변화를 비판하였다.<sup>5)</sup>

구맨(Grant K. Goodman)은 2차대전시 일본의 필리핀 점령시 필리핀 엘리트가 일본군에 협력한 것은 미국에 대한 반항심이나 일본에 대한 충성심도 아니고 단순한 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sup>

일본점령이 필리핀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을 취급한 일본인 최초의 연구는 필리핀의 일본군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리카르테(Artemio Ricarte)장군을 중심으로 소위 친일적 필리핀인의 활동에 초점을 둔 이케하타(池端雪浦)의 연구가 있다. 소수독재정치에 저항한 리카르테 장군을 일본의 점령의 도구로서 이용하여 리카르테 장군의 필리핀변혁에의 의도는 좌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sup> 또한 오오다(太田弘毅)는 일본의 필리핀점령을 2기로 나누어 초기의 일본군정과 1943년 이후의 일본점령시의 컴먼웰츠의 필리핀 독립정부를 인정한 후의 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필리핀의 점령시 초기의 일본군정에 대해<sup>8)</sup> 논하고 있다. 또한 우에다(上田 敏明)는 필리핀을 침공한 일본군의 실태와 점령하의 필리핀의 상황을 인터뷰하면서 조사하여 대동아공영권의 허구와 붕괴를 고찰하고 있다.<sup>9)</sup> 일본군은 피점령지의 주민(필리핀인)을 살해하는 모순을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말살하려 했음을 지적하

Japanese Propaganda 1941-1945,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48.

4) Elmer Lear, 1952. Collaboration in Leyte: The Philippines, under Japanese Occupa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11(2): pp183-206.

5) David Joel. Steinberg, Philippine Collaboration in World War I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1967

6) Grant K. Goodman,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Philippines:successful collaboration of invading and indigenous power Elit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Sophia university,1982, pp30-39.

7) 池端雪浦 「フィリピンにおける日本軍政の一考察—リカルテ將軍の役割をめぐって」 『アジア研究』 (アジア政経学会) 22/2 (1975.7) pp.40-74.

8) 太田弘毅 「フィリピンにおける初期の日本軍政」 『政治経済史学』 122,128,129号(1976,1977)

9) 上田 敏明 著, 聞き書き.フィリピン占領, 勁草書房: 1990.3

고 있다.

아라(荒 哲)는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의 8번째로 큰 섬인 레이테(Leyte)지역의 대일협력자 및 항일 게릴라와 점령지인 레이테의 엘리트 등이 관여한 정치적 협력과 이의 원인으로 등장한 정치적 폭력에 관해 고찰하였다.<sup>10)</sup> 맥코이(Alfred McCoy)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A Politics by Other Means)란 저서에서 지금까지 필리핀역사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았던 바사야 지역을 중심으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지방정치에서 형성된 과별정치가 일본점령기시기에 대일협력과 대일항쟁으로 격화되어 지방정치의 비민주화되어갔고 그 원인으로 필리핀의 민주화가 나태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1)</sup>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필리핀점령시의 연구는 전쟁과 관련이 있어 정치적인 면으로 평가한 연구가 많으나, 시캣( Gerardo Sicat)<sup>12)</sup>은 일본 점령하(1941-1945년)의 필리핀경제를 일본의 필리핀점령전과 일본의 필리핀점령하의 경제적 변화에 대해 산업별로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점령중의 필리핀의 인플레이션과 점령하의 엄청난 자본손실과 생산손실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에 대한 연구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의 필리핀점령과 화교에의 영향은 탄(Antonio S. Tan)에 의해 이루어 졌는데 필리핀화교 13만 명중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는데 특히, 화교가 필리핀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융합화의 움직임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의 점령에서 화교의 저항운동은 이 과정을 한층 더 빠르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리(Li Yuk-Wai) 는 일본점령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인 지역사회의 의

10) 荒 哲, 日本占領下のフィリピン・レイテ島における対日協力と対日抵抗をめぐる政治抗争. 東南アジア研究 51 卷 1号 2013 年 7 月.

11) Alfred W. McCoy, " 'Politics by Other Means': World War II in the Western Visayas, Philippines," in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 ed. Alfred W. McCoy, Monograph Series, no. 22. 1980.(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n Center)

12) Gerardo P Sicat, The Philippines Economy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41-1945. School of Economics university Philippines, Discussion Paper no.0307 November 2003.

13) Antonio S. Tan,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41-1945, Quezon City, Published for the Asian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81

저항에 대해 우익(국민당그룹) 좌익(공산당)그룹의 게릴라 등으로 나누어 중국인의 저항에 대 논하였으며 좌익게릴라의 저항이 조금 더 강했던 이유는 하층의 화교들과 중국본토에서 국민당과 수많은 전투를 벌인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sup>

용리(Yuk-wai Yung Li) 는 필리핀에서의 화교들의 집단적인 일본과의 저항을 화교전사(Huaqiao Warriors)로 표현하여 일본점령기시대의 필리핀에서의 화교들의 전투과정과 게릴라의 전투상황을 묘사하며 화교들의 승리전투 등을 소개하기도 하였다.<sup>15)</sup>

시(Teresita Ang See)는 The Huaqiao Warriors 의 서평을 기술하면서 초기 반일운동의 시작을 1937년의 중일전쟁의 발단으로 주장하며 필리핀화교의 저항운동에 대해 필리핀에서의 화교경제에 대한 평가와 영향, 그리고 화교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중국의 영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6)</sup>

오다(太田弘毅)도 일본군정하의 필리핀에서의 각종주민대책의 논문에서 중국인에의 대책에서 항일화교분자의 처리문제에 대해 고시를 한 점이나 반일화교의 비밀조직 항적위원회에 대해 親日화교조직인 필리핀 화교협회를 설립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sup>17)</sup>

이처럼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의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의해 경제적인 면보다는 주로 정치적이고 전쟁, 전투로 표현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일반적으로 화교에 대한 연구는 순수한 중국국적의 華僑와 몇 세대 정착하면서 거주국의 여성과의 혼혈인 華人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화

14) Li Yuk-Wai, The Chinese Resistanc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 23, No. 2 (Sep., 1992), pp.308-321.

15) Yuk-wai Yung Li, The Huaqiao Warriors: Chinese Resistanc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1942-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November 7, 1995

16) Teresita Ang See, The Philippines-Chinese Resistance Movement:1942-1945, Philippine Studies Vol.46.no4,1998,,pp514-521.

17) 太田弘毅 「日本軍政下フィリピンにおける各種住民対策」 『政治經濟史学』日本政治經濟史学研究所, 189 (1982.2) pp.64-91

교, 화인을 중국의 혈통이나 문화를 중심으로 판단하는가, 그렇지 아니면 거주국 중심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가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한다. 화교에 대한 연구는 중국계의 학자인 載國揮<sup>18)</sup>는 중국의 사회, 문화, 경제사의 방법적 틀 속에 위치 지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크버그(Edgar Wickberg)<sup>19)</sup>와 앤더슨(Benedict Anderson)<sup>20)</sup>등은 정주자의 화교의 정착과정과 거주국의 경제사속의 가치기준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필리핀이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구미인과 원주민 사이의 중간 매개인 으로서의 화교의 등장으로 이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점령하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의 적응과 저항을 미국자료와 중국자료, 화교자료를 중심으로 화교 커뮤니티의 시대적변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Ⅲ. 일본점령이전의 필리핀에서의 화교의 등장과 적응

#### 1). 스페인식민지하의 중국인 과 중국계 메스티조

필리핀에서 중국인들이 정착하게 된 이유는 1571년 스페인령 필리핀의 수도로 마닐라시가 설치되어 스페인령 멕시코와의 사이에 마닐라-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선의 정기항로가 확립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중국의 명왕조가 통화로서 필요로 했던 은과 멕시코에서는 중국의 비단이 필요해지면서 은과 비단의 교역으로 불렸던 마닐라 갈레온 무역은 마닐라-아카폴코-복건의 삼각무역의 형태로 발전하면서 복건의 중국 상인들이 마닐라에 진출하면서 중국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삼각무역의 형태에 대해 1571년에 스페인이 물자집산지로서 마닐라를 건설하기

18) 載國揮 『華僑 —落地生根から落葉歸根への苦悶と矛盾』 研文出版、1980年

19) Edgar Wickberg(1965), *The Chinese in Philippine Life, 1850-1898*.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5.

----- (1970), "The Chinese in Philippine History." *Asia* 4.18 (1970), 1-15.

20) Benedict Anderson(1972), *Java in a Time of Revolution: Occupation and Resistance, 1944 - 1946*, Cornell University Press.

----- (1998),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Verso

전 아메리카와 아시아간의 교역루트는 없었다고 하면서 지구상에서의 글로벌화는 1571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sup>21)</sup>

이시기에는 銀이 필요해 비단을 갖고 온 중국인, 특히 福建상인이 몰려들게 된다. 필리핀내의 중국인의 수의 증가에 대해서는 레가스피에 의한 스페인통치가 시작한 1571년에 150인(이해에만 마닐라), 1588년에 1만 명, 1603년에 3만 명으로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다.<sup>22)</sup> 이들은 상레이(상글레이, sangley)로 칭해지면서 스페인령 필리핀정부는 이들을 파리안(Parian:生絲市場)이라는 거주지로 격리시키는 한편, 식민지정부의 첫 번째 목적인 현지주민의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요구하며 1594년에는 마닐라의 비논도(Binondo)지역에 화인개종자들과 그들의 자손을 위한 거주지가 설치되었다.

필리핀총독부는 중국인을 직접통제하지 않고 중국인 이민사회의 조직의 지도자인 고베르나도실료(Gobernadorcillo) 카베실랴(Cabecilla) 카피탄(Capitan)등의 칭호를 주어 이들에게 스페인령필리핀총독의 지시를 받게 하여 간접적 통치를 하였다. 즉 세금징수의 경우에 중국인에게 부여된 공작인 세금과 거주세 등은 입찰에 의한 請負制를 채용하였다.<sup>23)</sup> 다시 말하면 마닐라의 중국인이민사회는 실질적으로 중국인지도자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스페인령 필리핀에 중국인이 정착하면서 중국계 메스티조로 등장하게 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불리는 것은 가톨릭의 강제적개종과 수용이었으며 이는 부르봉개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배경에는 1700년의 스페인왕실의 교체가 있었다. 합스부르크(Habsburg)가에서 부르봉(Bourbon)가로 바뀐 왕실은 국가권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 부르봉 개혁은 중앙집권화, 세제의 개혁, 산업의 진흥 등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개혁은 스페인본국은 물론 스페인식민지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지배를 더욱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게 되었다.

스페인의 부르봉개혁의 필리핀실시를 주장했던 아란디아(Pedro Manuel

21) Dennis O. Flynn and Arturo Giráldez. 2006. "Globalization Began in 1571", in Barry K. Gills and William R. Tompson, eds., *Globalization and Global History*, London, pp19-33

22) 周南京 「中国和菲律濱の歴史關係」 吳文煥編 『菲律濱與華人』 (菲律濱華裔青年聯合會, 1993年) p.86.

23) 池端雪浦, 「フィリピンにおける現地人官僚制度の変容—スペイン体制後期を中心にして—」 石井米雄他編 『東南アジア世界の歴史的位相, 1992. 東京大学出版会, pp.184-188.

de Arandia) 총독(재임1754-1759)이 실행한 1755년 非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은 필리핀의 중국인 이민사회에 엄청난 전환을 가져다주었다<sup>24)</sup>. 식민지경제의 실권을 스페인사람 중심으로 하기위한 제1단계로서 식민지경제의 중국인에의 의존을 감소하기 위하여 식민지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톨릭의 개종을 의무화 시켰던 것이다. 제2단계로 중국인 이민자가 담당하였던 상품유통부문에 스페인인, 메스티조, 인디오도 참가시켜 스페인이 주도하는 식민지경제를 세우려고 하였다.

또한, 식민지경제를 위하여 16세기이후의 중국과의 범선무역을 계속 유지 시켜 무역으로 왕래하는 중국인을 이교도(infieles)와 가톨릭교도(cristianos)와 구분하는 방침을 세웠다.<sup>25)</sup> 따라서 필리핀으로 이주하는 중국인은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이념적으로 스페인국왕의 신하가 되어 스페인 식민지필리핀의 정통적인 구성원으로서의 필리핀인(중국계메스티조)이 되었으나 비개종 중국인은 스페인국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이교도 중국인(sangley infiel)으로서 식민지사회에서 많은 제한을 받았다.<sup>26)</sup>

한편 복건지방에서 매년 마닐라로 들어오는 이교도 중국인을 위한 새로운 파식(pasig)지역의 하천변에 새로운 숙박시설로서 알카이세리아 산 페르난도 (Alcaicería de SanFernando)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알카이세리아 수용소에 수용되어 교역 후에는 중국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아란디아 총독의 非가톨릭교도 중국인의 추방정책은 가톨릭교도의 중국인 이민자와 이교도 중국인 체류자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이론적으로는 스페인령 필리핀의 주민은 전부 가톨릭화 되었다.<sup>27)</sup>

18세기의 중엽 스페인령 필리핀에서는 모든 필리핀 주민의 가톨릭화가 이루어져 새로운 이민자들도 이법을 무시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스페인령필리핀정부는 1850년에 중국계이민의 도항제한을 해제하여 중국인 계약이민(쿨리)의 대량모집정책이 들어서게 되었다.

24) 菅谷成子(2000).“18世紀中葉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移民社会のカトリック化と中国系メスティーソの興隆”p439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9冊,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25) Salvador P Escoto. 2000. "A Supplement to. the Chinese Expulsion fromthe. Philippines." 1764-1779. PHILIPPINE STUDIES 48(2).pp212-214.

26) 이덕훈,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과 역할, 동남 아시아연구 24권 4호, 2014년11월.p264.

27) 菅谷 成子. 2005. 18世紀末葉のスペイン領マニラ : "マニラ公正証書原簿からみた植民地社会における中国人." 『愛媛大学法文学部論集』.人文学科編 18卷.pp20-24.

1851년부터 1900년까지의 불과 50년 사이에 6만5천명의 중국인이민의 정착은 당시의 필리핀으로서도 대량이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대량 이민의 대부분은 계약노동자였으므로 스페인 식민지시대의 필리핀 정착 한 중국계 메스티조는 중개상인(華商)의 형태에서 정착했으나, 19세기이후에는 임금노동자(華工)로서 이주하여 중국인 이민은 화상에서 화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스페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계 필리핀인이 가톨릭 수용후에 종교, 세금 등의 부분에서 필리핀인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대량이민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계약이민인 쿨리(苦力)의 대량이민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필리핀에 정착한 중국계 메스티조(화인)와 중국인 임금노동자사이에는 경제적 긴장관계가 발생하게 된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긴장 결과는 필리핀에서 이미 정착한 중국계 메스티조가 소매업에서 광산이나 플랜테이션 등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새로 이민 온 쿨리(苦力)들이 차지하게 된다.

1823년 음악단체의 이름을 딴 長和社, 郎君社라는 2개의 비밀결사단체로 알려져 있다.<sup>29)</sup> 이들은 주로 유복한 상인으로서 구성되어 相互扶助를 기초로 설립되었으나 새로운 이민자(쿨리)를 받아들이면서 각각의 무장조직을 갖는다. 이들 조직은 중국인노동자와 현지사회와의 갈등과 중국인 노동자들의 싸움의 조정 등을 행해왔다.<sup>30)</sup>

1850년대에는 이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1888년의 洪門會의 설립, 또는 天地會의 설립 등 더 강력한 비밀결사가 등장한다. 필리핀에서의 흥문조직의 영향을 나타내는 예로서는 필리핀혁명에서 아기날도(Emilio Aguinaldo)측의 장군 파우어(Ignacio Paua) 및 3,000명의 중국인의 참가를 들 수 있다. 파우어는 마닐라 天地會의 지도자의 일인이었으며 3,000명의 중국인도 天地會의 동료들이었다.

1877년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인구는 약290,000명으로 필리핀 전체인구의

28) 이덕훈, 스페인령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적응과 동화, 디아스포라 학회, 제16집, 2014.12 세계한상문화연구원, pp123-124.

29) Edgar Wickberg, The Chinese in Philippine Life 1850-1898.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2000., p179.

30) Andrew Wilson, Ambition and Identity. Chinese Merchant Elites in Colonial Manila, 1880 - 1916.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64

약5.2%를 차지하였고 순수한중국인은 23,000명이었다.<sup>31)</sup> 그중 마닐라에만 약 46,000명의 중국계 메스티조가 살고 있었다.<sup>32)</sup> 순수한 중국인인구는 중국계 메스티조의 약8%에 해당되며 당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경제력은 스페인인의 경제력을 상회하면서 필리핀경제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1875년의 루손지역의 대규모 농장226개 가운데 73%인 165개는 중국계 메스티조가 소유하였고 55개는 스페인계, 나머지16개는 유럽계가 소유한 자료<sup>33)</sup>를 보면 중국계 메스티조의 경제력장악은 이미 이시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미국 식민지하(1898-1946)의 화교

스페인 식민지시기의 필리핀에 전개한 인종별 통치정책, 특히 중국계 메스티조의 공적범주의 인정은 화교(화인)의 아이덴티티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지만 미국 식민지시기에는 이러한 인종별 통치정책은 채용되지 않았고 화교이민의 증가와 정착에 역지력으로 작용하는 엄한 이민정책이 실시되었다. 미국의 식민지의 필리핀에 미국이 취한 1902년 中国人排斥法( Chinese Exclusion Act)의 필리핀적용<sup>34)</sup>인데 그 내용은 귀국조건을 포함하여 미국내의 중국인 이민조건을 그대로 필리핀에 적용함과 동시에 필리핀에서 미국본토로의 중국계노동자이민을 금지하고 있다. 이민의 유동성이 증대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경유해서 유입되는 중국계이민을 방지함과 동시에 필리핀에서도 중국계노동자의 이민금지와 중국계주민의 거주규제의 수순을 정하였다.

스페인 식민지제도하에서의 엘리트 계급인 프린시팔리아(Principalia)에 필리핀의 상품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상인, 토지소유자 및 정부사업청부인 등의 신흥유산계급이 프린시팔리아(Principalia)에 진압하였는데 중개상인, 대토지소유자 등 에는 중국계 메스티조가 상당수 있었기에<sup>35)</sup>경제력에 맞는 사회적위신인

31) 이덕훈,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 의 등장과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4권4호, p265.

32) Tan, A.S. (1985) Chinese Mestizos and the Formation of Filipino Nationality. In T. Cariño (ed.), Chinese in the Philippines,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Press. p52.

33) 박사명,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역사적비교, 동남아시아연구 4권, 1996, 한국동남아시아학회, p18.

34) Clark L. Alejandrino, History of the 1902 Chinese Exclusion Act : American colonial transmission and deterioration of Filipino-Chinese relations. Manila : Kaisa Para Sa Kaunlaran, 2003

프린시팔리아(Principalia)에 중국계 메스티조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식민지시기의 필리핀에서는 중국계 메스티조와 스페인계 메스티조로 형성된 엘리트층인 프린시팔리아(Principalia)를 인정했기 때문에 중산층인 중국인도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sup>36)</sup> 미국식민지로 필리핀은 출발했지만 이시기에 중국본토는 태평천국의 난(1850-64), 의화단의 난(1900년), 등으로 청나라는 거의 멸망직전에 있었고 이 시기에 복건지역에서 기아와 가난을 탈피하기위해서 중국본토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그룹은 중국계혼혈이 아닌 중국계로 정의할 수 있다.<sup>37)</sup> 중국인 배척법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척을 「채용」하여 다른 중국계 필리핀인의 도움을 빌려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다.

친벤 시(Chinben See)는 미국식민지시기의 필리핀의 화인 아이덴티티의 재생의 기능으로서 여러국면에서 전개되는 화인조직(association)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화인상공회의소(Chinese Chamber of Commerce)를 정점으로 화인학교 그리고 비공식적인 동향조직, 중친회등으로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8)</sup>

1904년에 필리핀 중화총상회(菲律濱中華總商會: Philippine Chinese General Camber of Commerce)가 설립되었고 1906년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지도에 따라 명칭을 마닐라 중화총상회(馬仁拉中華總商會: Manila Chinese General Commercial Affairs Association)로 변경하여 중국정부와 각지의 상회와의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된다.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은 정치와 무관했던 필리핀화교들을 요동시켜 중화총상회를 중심으로 금전원조는 390,000페소로 올랐으며 1911년10월10일 中華民國건립시에는 중화총상회는 600,000달러라는 거금을 기부하였다. 1912년 5

35) Norman G. Owen, "The Principalia in Philippine History: Kabikolan, 1790-1898", Philippine Studies Vol.22,1974,p299.

36) Wickberg, Edgar. "Early Chinese Economic Influence in the Philippines, 1850-1898" . Extract from PACIFIC AFFAIRS Fall, 1962.

37) Weightman, George H. (February 1960) The Philippine Chinese: A Cultural History of A Marginal Trading Company. Ann Arbor, Michigan: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38) Chinben. See "Chinese Organizations and Ethnic Identity in the Philippines." In Changing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Edited by Jennifer Cus.hman and Wang Gungwu.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1998.

월 마닐라 중화총상회는 중화민국을 승인하여 국민당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39)</sup> 1914년에 국민당필리핀지부가 1914년 설립되어 1923년까지의 활동정지기를 지나면서 장개석의 남경정부수립에 의해 활동을 재개하였다. 1930년의 일본의 중국침략에 의해 국민당 필리핀 지부는 중국영사관과 함께 필리핀 中華反日協會(philippines chinese anti-japanese association)를 결성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 반일에 가담하였다.

1931년 일본은 중국 북동부지역인 만주(지금의 동베이 지구(東北地區))를 점령하여 꼭두각시 정권인 만주국을 세우고 이 지역의 산업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으로 중국에서는 점차 반일운동이 확산되었다. 반일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자 1937년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내전종식에 합의하고 심화되는 일본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했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 교 사건(盧溝橋,노구교사건)에서 베이징 서쪽의 평타이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중국군이 무력 충돌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7일 야간 전투훈련 중이던 일본군 1개 중대의 머리 위로 10여 발의 총탄이 날아온 직후 일본군 사병 한 명이 행방불명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중국군이 일본 병사를 납치해갔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구실로 평타이에 있는 보병연대 주력을 출동시켰다. 일본군은 7월 8일 아침부터 루거우 다리(盧溝橋, 노구교)를 수비하고 있던 중국 제29군을 공격하여 하루만에 다리를 점령하였고, 중국군은 융딩강 우안(右岸)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일본군의 지시를 내린 자는 무다구치 렌야(牟田口廉也)였다. 이 사건은 뒷날 일본군이 조작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중화총상회의 이러한 중국에의 경사적 흐름은 원주민인 필리핀인을 자극하였으며 이들의 경제력과 경영관행도 문제시 되고 있었다. 이러한 예는 쌀 부족에서 나타난 필리핀사회에서의 화교들의 행동에서 나타난다. 1919년의 필리핀에서 쌀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필리핀 경찰군(Philippine Constabulary)은 루손의 몇 개주에 쌀 부족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치안불안이 등장한다. 동년의 경찰군의 보고에 의하면 특히 화교상인에 대해 창고와 거주지의 방화,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1)</sup>

39) 松島 宣広, 『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社会 : 中華總商会の役割を中心として』, Vol. 35 No. 1 · 2, 2011年3, 創価大学社会学会, p45.

40) 相良俊輔, 「敗将牟田口中将の遺言—インパールの鬼と罵られた男の涙と執念」 『現代』 2卷4号、講談社、1968年4月, pp305-307.

41) QP(Rice 1919, Box504, Synopsis of Constabulary Reports)

마닐라에서 세부의 각주의 쌀의 유통조직은 화교계의 마닐라도매상이 지방에서도 지점을 갖고 있으면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계층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닐라의 유통구조는 약 40명 정도의 도매상인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약 100명 정도의 중간상인이 존재했고 그리고 세 번째의 아래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화교의 계층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었다.<sup>42)</sup>

당시의 미국의 식민지정부는 미곡위기에 대해 1919년 7월 21일 2가지 법률을 가결하였다. 법률 제 2868호는 쌀 부족 등의 특별상황에 대해 벼, 정미 및 옥수수의 유통, 판매에 대해 독점, 저장, 투기를 금지되었으며 법률 제 2869호에서는 쌀의 수출이 금지되었다.<sup>43)</sup> 법률 제 2869호는 구체적으로는 화교상공회의소에 소속된 상인이 쌀 가격이 비싼 홍콩에의 쌀 수출을 행하는 사태가 사회문제화 되어 있었고 이런 이익중심지향의 화교들의 상행위는 필리핀사회는 물론, 식민지정부인 미국에서도 화교들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바는 때문에 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sup>44)</sup>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1921년의 簿記法(Book Keeping Act)도 중국계 상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기법이란 모든 회계장부에서 상용되는 언어를 중국어를 금지하고, 영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한정하는 것으로 중국인을 경제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필리핀의 전국적 미곡유통의 귀결점에는 마닐라의 투투반米穀취급소(The Tutuban Rice Exchange)가 있었는데 이 미곡(米穀)취급소는 1922년 필리핀 중국인(화교)미곡(米穀)상인조합(philippines Chinese Rice Merchant Association)에 의해 설립되어 이 미곡취급소는 중국인 네트워크와 중국어가 사용되는 등 화교거래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필리핀이 미곡거래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sup>45)</sup> 이처럼 투투반 미곡거래소에서는 중국인 특유의 거래 관행이 보여고 문화적 요인이 중국인의 유통지배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 진다.

필리핀의 중국인은 복건, 특히 복건남부의 출신자가 약 90%로 압도적으로

42) The Manila Times, August 3, 25, September, 7, 8, 9, 11, 1919

43)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Report of the Governor General of the Philippine Islands 1919, pp 202-204

44) The Manila Times, July 26, 27, 1919

45) Philippine Commonwealth, Rice Commission Report, pp 28-30.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그것은 마닐라-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을 지탱해온 마닐라와 복건을 잇는 범선무역이 발전하여 복건-마닐라-아카폴코를 잇는 해상무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중친회의 특징으로서 90%의 복건계와 10%의 광동계로 나누어지는데 소수파인 광동계의 중친회의 설립이 빠르다. 광동계의 중국인은 1850년 초기에 廣東會館을 설립하였고 그리고 복건계도 같은 시기에 雜姓會라 불리는 중친회의 연합으로 불리는 閩商會館이 설립되었다. 필리핀중친회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광동계중국인이 설립한 龍岡公所 (Loong kang Kung So)이다. 복건계의 중친회는 施, 蔡, 吳, 林, 陳 씨등 고향복건의 세력이 큰 성의 중친회는 1850년대 설립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1920년대 설립되었다.<sup>46)</sup>

예를 들면 이씨의 경우 광동계의 李隴書堂의 설립은 1903년인데 비해 복건계의 隴西李氏宗親會설립은 1933년이다. 그 이유는 광동계는 필리핀에서 10%를 차지하는 소수파로서 외국생활이 불안하였고 조기부터 중친회 등의 생활보조적인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47)</sup>

스페인식민지시기의 중국계 메스티조는 가톨릭을 믿으면서 脫中國化를 했지만 미국식민지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쿨리(화교)는 중친회를 통하여 再中國化를 표명하여 中國人姓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식 가부장제의 유지와 중국식의 유교서열을 유지하며 혈연, 지연, 그리고 동업단체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다.

20세기 전반 세기(1904-1949)는 상술한 것처럼 화교 네트워크가 유효하게 작용하였고 기능했던 시대이다. 이 화교 시스템을, 국내외의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화교 화인을 시야에 넣은 국민 통합에,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당 정부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의 마지막 8년은 일본 제국주의의 남진정책에 있어서, 가장 만만치 않은 항일 통일전선의 한 형태로서 나타나 많은 회유와 혼잡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1932년 Hare - Hawes - Cutting Act<sup>48)</sup>에 의해 설립된 필리핀 독립준비 정부

46) The Chinese immigrants : selected writing of Professor Chinben See / edited Teresita Ang See, Manila : Kaisa Para Sa Kaunlaran : Chinese Studies Program, De La Salle University,1992

47) See, Chinben, Chinese clanship in the Philippine setting.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ingapore) 12, no.1 Mar 1981 p226.

48) 미 식민지하의 필리핀 자치 정부의 뒤에 필리핀 독립을 1945년으로 인정하려고 한 법

기관도 중국인에 대한 반대를 하여 1941년에 마닐라 시(Manila Municipal Board)가 마닐라 공설시장에서의 상거래를 필리핀국민에 한정한다는 결정은 당시 중국인에 의해 독점되었던 도매업 및 소매업의 관리를 필리핀인에게 되돌려 주려는 정책의 하나였지만<sup>49)</sup> 이는 일본의 필리핀 점령 후에 사라졌다. 중국인은 117, 727명으로 필리핀의 외국인 그룹 중 가장 큰 집단이며 외국인 165,813명의 71%를 차지 할 정도로 많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국인 사회보다는 작게 나타나 있었다.

예를 들면 인구 500만 명의 말라야에서 중국인은 40%인 200만 명 이었고 태국은 14,50만 명 중 3.4%인 50만 명에 이었던 것에 비해 필리핀은 1700만 명 인구의 약 0.7%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940년의 필리핀의 중국인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그러나 이들이 차지하는 상업과 유통의 비중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39년의 센서스에 의하면 필리핀의 중국계 시민 79,463명으로 그중 마닐라에는 39.4%인 46,2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부에는 5.2%인 6,117명이, 리잘에는 4.6%인 5,43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직업적 분포에 의하면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53.7%인 42,655명 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대기업의 영업직과 소상공인의 경리가 28.3%인 22,47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많이 차지하는 직업은 요리사, 이발사, 세탁소등의 개인서비스업이 24.5%를 차지하고 있다. 세 번째 많이 차지하는 직업은 제조업으로 11,350명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었다.<sup>51)</sup>

상술한 자료를 보면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전의 필리핀 중국인 사회는 필리핀의 무역과 유통과 중심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도 타 동남아국가의 화교들보다도 더 높은 수입의 무역과 유통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sup>52)</sup>

이러한 특징은 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중류층으로 진입을 가능케 했으며 필

49) Blaker, James R. (1970)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Power and Change, Ph.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p199.

50)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26(March 1943,p33.

51) Census of the Philippines, 1939 : 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 p.491.

52) George H. Weightman, "The Philippine Chinese: A Cultural History of a Marginal Trading Community"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60).p404.

리핀화교들은 중국정부에 많은 재정적 후원을 하게 되고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필리핀화교의 반일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 IV. 일본의 필리핀 점령(1942년~1945년)기의 화교의 현황과 대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日帝)은 아시아 지역에서 歐美의 식민지 지배를 타파하고 아시아 민족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大東亞共榮圈 결성을 주장하면서 침략정책과 전쟁을 정당화했다. 中日戰爭이 장기화되자 일제는 전쟁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38년 11월 3일 일만지(日滿支: 일본, 만주, 중국) 3국의 '선린우호·공동방공·경제제휴'를 표방한 <동아신질서건설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1940년 1월 미·일 통상조약이 실효되고 일제의 남진정책이 구체화되자, 미국은 대일금수를 강화하고 장제스[蔣介石] 정권에 대한 군사·경제적 원조를 증가시켰다.

특히 1941년 7월 독·소 개전 후 일본군의 프랑스로 인도차이나 진주에 대해 미국·영국·네덜란드는 대일자산동결과 대일석유수출 금지를 단행하고, 일본과의 전면 대결을 표방했다. 1941년 11월 '自衛自存'을 목적으로 미국·영국·네덜란드와의 전쟁도 불사한다는 <帝國國策隨行要領>을 결정하고, 점령지의 치안유지, 군사전략 물자의 신속한 확보, 일본군의 현지에서의 물자조달을 규정한 <南方占領地行政實施要領>을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南方經濟對策要綱>이 결정되었으며 자원을 획득하고 당면한 침략전쟁을 완수한다는 <大東亞共榮圈自給自足體> 건설을 제기했다. 결국 일제(日帝)는 대동아공영권을 태평양전쟁의 궁극적 목적으로 선전하였으며, 이 전쟁을 '서양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동아시아 보위를 위한 자위전쟁'·'미국과 영국 세력으로부터 동아시아 민족을 이탈시키려는 해방전쟁'과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大東亞共榮圈自給自足體> 발표 직후 일본군은 1942년 1월2일 마닐라를 점령하였다. 당시의 필리핀의 인구는 15,833,649 명이었고 중국인은 117,487 명

일본인은 29,057명 미국인이 8,708명, 스페인인이 4,627명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일본군은 각종주민의 대책으로서 南方軍政建設의 방침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필리핀의 원주민의 종교를 존중할 것, 적국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태도로 임할 것, 동맹국인에 대해서는 우호적 태도로 임할 것, 그리고 화교를 충분히 이용할 것 등이다.<sup>53)</sup>

당시의 중국인, 즉 화교의 수에 대해서는 통계에서는 약 12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필리핀 전체로는 수 십 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필리핀에서 화교가 배급부문과 운수부문에 차지하는 강대한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군의 군정에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항일화교도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항일화교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전쟁전의 중국인항일지도자 및 반일화교의 중심세력인 黃念打등의 약 50여명을 체포하여 심문 중에 일본을 반대하는 죄상이 나타나자 50여명 전부를 사형에 처했다.<sup>54)</sup>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필리핀내의 화교단체의 거의 전부가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일본의 필리핀점령으로 미국의 지배는 종말을 고했으나 지배국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필리핀의 식민지상태에는 변화가 없었다. 외형상으로는 미국을 물러나게 하여 1943년 라울렐(Jose Laurel)이 일본의 영향하의 국민의회에 의해서 필리핀 공화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월에 필리핀공화국 대표로 일본이 만들어 놓은 대동아 회의에 출석해대동아공영권의 선전으로 이용당하기도 하였다. 필리핀공화국은 일본의 괴뢰정권에 지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항일운동의 양대 세력은 필리핀 人民抗日軍 Huk (Hukbalahap:(Hukbo ng Bayan Laban sa Hapon or the "People's Army Against the Japanese" in English)단 과<sup>55)</sup>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미국동군 게릴라(USAFFE)가 있었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화교노동자대표인 勞聯 (比率濱華僑各劳工团体聯合會)가맹의 각 단체는 抗日護僑委員會를 설립하여 미군의 행동에 협력하였다. 1941년 말 맥아더는 미군의 철퇴를 명령하여 마닐라는 무방비의 도시로 전락하였다.

53) 南方軍政建設の方針 (南洋資料,第46号) 昭和17年4月11日

54) 告示, 抗日華僑分子処断に関する件, 昭和17年 5月24日

55) Bautista, Alberto Manuel (1952), The Hukbalahap Movement in the Philippines, 1942-1952,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상황에서 화교항일단체들은 현재 세력을 보존하고 세상에 알려진 항일인사들을 타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필리핀의 중부 루손의 팜판가(Pampanga)는 뛰어난 지리조건과 농협조직의 가장 강고한 지방으로 게릴라전을 행하기 좋은 지역이었다. 이들은 청장년을 중심으로 短期政治軍事幹部訓練班을 조직하여 羅理實, 許敬誠, 郭汝江, 黃杰 등이 통일전선, 항일게릴라전술등의 과제를 담당하여 필리핀농협과 함께 항일무장조직설립의 준비를 하여 필리핀의 좌익화교단체로서 공개항일지하투쟁에 힘썼다.<sup>56)</sup> 일본점령시기의 필리핀에서 화교의 좌익조직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가 3개 있었는데 華支(華僑抗日遊擊支隊), 抗反(抗日反奸大同盟) 및 華僑導報였다.

필리핀 항일인민군(Huk)은 1942년 3월 중부 루손에서 결성되었는데 기원은 1930년대 말에 합쳐진 사회당과 공산당계의 노동자농민운동이었다. 이들은 항일운동뿐 아니라 지주타도운동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일본군은 물론, 미군의 지지세력 까지 적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동군 게릴라(USAFFE)와는 항일 이라는 공도의 목표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같이 연합할 수 없었다.<sup>57)</sup>

일본의 침략은 필리핀과 필리핀인에도 상상도 못할 경제적 피해를 주었지만 필리핀내의 화교사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1930년의 일본의 중국침략에 의해 중국의 蔣介石 국민당정부는 일본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화교조직은 대일 항전운동을 일으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은 주었다. 한편, 본인들이 거주하는 필리핀에 일본군이 점령을 하자마자 필리핀화교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움직임 즉, 항일 게릴라 군대로 대항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화교들의 일본에 대한 저항은 주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통해 경제적 저항으로 대항하였다. 그러나 당시 필리핀, 특히 마닐라에서 화교가 다수를 점하고 있던 소매업에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여 일본에게 타격을 주려 했지만 오히려 필리핀내의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직접물건을 갖고 오면서 화교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인(화교)이 80%-90%를 점하고 있던 마닐라내의 小売業이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에 의해 그 비율이 65%까지 저하되었고 나머지 비율을 일본군이 조직한 소매업네트워크가 그 비율을 차지하게 되

56) 白陵, 比率濱華支抗反誕生前的幹部訓練班, 雁來紅1, 所收, pp6-8.

57) 유인선,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필리핀근대사의 성립과 전개과정” 「아세아연구」 84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 pp.343-344.

었다.<sup>58)</sup>

또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증가하여 1903년에 1,215명이 1919년에는 9,874명<sup>59)</sup>이 1939년에는 28,80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4,730명이 마닐라에 17,888명이 다바오(Dava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sup>60)</sup> 일본제국을 필리핀거류 일본인이 이 부분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본제국 불매사건으로 뒤숭숭한 화교사회에 중화 총상회(中華總商會) 지도자인 薛敏老(Alfonso Sycip)은 화교상인의 기치를 내걸며 “필리핀내의 중국인은 군사적, 정치적인사건에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고 본래의 상인으로서의 되돌아 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일본군은 1942년 1월 마닐라 점령 후에 중국영사관직원과 비둘기파로 불리는 中華總商會 지도자인 薛敏老(Alfonso Sycip)등을 구속하거나 추방하여 새로운 친일화교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사건은 필리핀 국내 중국인의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당 필리핀지부와 공산당 필리핀지부에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필리핀의 중화총상회의 당초의 목적인 중국인이권보호라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중국대륙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필리핀화교사회의 지도력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었다. 즉, 일본군의 필리핀 점령에 의해 민족주의자인 항일운동에의 지도자들이 중화총상회의 권력을 잡으면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움직였던 중화총상회는 정치적 단체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의해 중국영사관의 지도하에 움직였던 국민당(國民黨) 필리핀지부와 공산당(共產黨) 필리핀지부로 나뉘어졌었으나 国共合作으로 인해 반일화교조직은 더 큰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2차 대전 후에 중화총상회의 권력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국민당계와 공산당계로 분열되다가 필리핀이 미국의 힘으로 독립하면서 미국영향을 받아 반공노선으로 움직이면서 국민당계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중화총상회의 초기의 정치적 움직임은 일본의 필리핀 점령 후에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8) Yung Li, Yuk-wai, *The Huaqiao Warriors: Chinese Resistanc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1942 - 1943*, (Quezon City: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6, p51.

59) *Philippines Census* 자료에 의함

60) *海外在留邦人員調, 比率賓年鑑, 1936-1939*

외부세력과 관계없이 필리핀국내의 중국인사회의 정치, 경제, 특히 경제에 관심을 가졌던 화교조직은 상술한 바와 같이 마닐라 점령후의 일본군의 화교 지도자 薛敏老(Alfonso Sycip)등의 구속으로 항일운동으로 변하게 하는 촉진요인이 되었다.<sup>61)</sup> 그렇다면 왜 일본은 화교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의 일본군정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up>62)</sup>

화교는 지금까지 蒋介石정부를 지원하고 일본에 반대하는(援蔣抗日) 기색을 선명하게 나타냈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했지만 장래의 일본군정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여기서 가혹하게 탄압의 자세를 보여 시범케이스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반일화교의 비밀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국의 中京정부의 명령에 의해 抗敵委員會 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었다. 일본군정을 방해하기위해 암약하므로 抗敵委員會에 대응하기위해 일본군으로서도 친일화교단체를 발족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1942년 6월1일 마닐라의 유력화교 1,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군의 참석 하에 필리핀화교협회가 발족되었다. 이 친일화교협회의 결성은 난민구제, 반일본자의 검거에 적극협력 한다는 화교들의 대일협력의 구체적 표명이었다. 1942년 7월20일 군정감사부에서는 적 재산으로 봉인된 화교가옥 12채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는데 이는 화교협회의 대일협력에 대한 경제적 봉인해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에 대해 일본군의 정보전달을 원활히 하기위해 1943년 3월에 華文馬尼喇新聞이 간행되었다.<sup>63)</sup>

일본의 필리핀 점령 후에도 화교들의 조직은 국민당, 공산당으로 나뉘어져 소위 国共양파의 각 조직은 항일무장조직을 결성하였다. 그중 국민당계의 중요한 조직은 4개의 단체가 있었다. 4개의 단체는 華僑戰時血幹團(COWHM), 華僑迫擊團(Squadron399)과 菲律賓華僑青年戰時特別工作總隊(PCTYWSSC), 菲律賓華僑義勇軍(CVP)등 이다. 4개의 단체중 華僑戰時血幹團(COWHM)과 菲律賓華僑青年戰時特別工作總隊(PCTYWSSC),菲律賓華僑義勇軍(CVP)등 3개 단체는 완전하게 국민당계열(우익)이었다.<sup>64)</sup>

61) Yung Li, Yuk- wai, ibid pp50-72.

62) 『昭和史の天皇』10,読売新聞社, 2011, p117.

63) 太田弘毅 「日本軍政下フィリピンにおける各種住民対策」 p76.

64) Yung Li, Yuk- wai, The Huaqiao Warriors, pp115-116.

이들의 지도자는 전부 중국의 中央軍官學校 또는 그 외의 국민당의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경험자였다. 이들의 주요단체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상인과 자영업자들이어서 중산층이 대부분이라 항일운동에는 華僑搏擊團등이 있었지만 경제적 부분을 보조하는데 그쳤다.

공산당계는 華支(華僑抗日遊擊支隊), 抗反(抗日反奸大同盟)등이 있었는데 국민당계에 속해 있던 華僑迫擊團(Squadron 399)이 華支(hwa chi)에 가입하면서 華支가 가장 유명한 유격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들은 후일 미군과 함께 일본군을 섬멸하는데 앞장서서 필리핀의 14개성과 마닐라시의 전투에 가담하여 일본군 2,000여명을 사살하였다.<sup>65)</sup>

僑黨(非共華委)의 지도자 許敬誠, 李永曉등은 華支와 필리핀민항군군사위원회의 연락원을 담당하며 華支의 지도자인 총대장 黃杰 참모장 王西雄 및 대대장등의 간부 등은 중국본토에 귀국하여 참전(신서군, 팔로군) 한후 필리핀에 돌아온 자들도 많았다. 華支의 군대원칙은 중국공산당의 군대를 모델로 하여 中國革命軍隊優良戰通을 교재로 하고 紅軍의 3대기율, 八抗主義 등을 규율로 하였다.<sup>66)</sup> 이들의 항일목적은 조국(중국)을 일본군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필리핀에서도 같이 작용하였다.

항일에 참가한 실제인원은 약 4,000명으로 필리핀전체는 약 10,000여명을 넘었다. 나중에 국민당계의 중산층 화교의 참가로 필리핀의 전 화교들이 항일운동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1942년 당시 화교인구가 13만 명이었으나 1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것은 필리핀에 정착한 이방인 화교가 항일 게릴라로서 일본군과 전투로 나타난 희생이었으므로 필리핀인의 화교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친근감으로 변하면서 화교와 필리핀사회의 융합화가 가속화되었다.<sup>67)</sup>

한편 1944년 화교중 상층인사를 대상으로 華僑商人抗日反奸同盟(商抗)이 설립되어 僑商公報가 발행되었다.<sup>68)</sup> 이들은 국민당계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1945년 제2차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면서 화교조직은 중립계인 마닐라 중화총상회파와 국민당파, 공산당파인 3파로 나뉘어졌다.

65) 菲律賓華支退伍軍人總會慶祝 建軍40周年紀念刊(1942-1982)

66) 曾梅生, 英勇奮戰在呂宋島上, (非島華僑抗日風雲 所收)

67) Antonio S. Tan.,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42-1945, Quezon City : Published for the Asian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1981

68) 原 不二夫, 東南アジア華僑の組織的政治・社会活動と各国政府の対応, 第1章, 廖 赤陽, フィリピン左派愛國華僑組織の変容 을 참조할 것.

또한, 1949년 蔣介石의 국민당정부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철수했을 때 최초로 사절단을 보낸 것도 필리핀 국민당지부였으며 중화총상회, 중화화교총회, 국민당, 종친회연합회, 반공산주의연맹 등의 5개 단체가 중화총상회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필리핀에서 이방인인 화교들이 반일운동과 전투의 희생과 참여는 필리핀에서의 일반 필리핀인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필리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화교의 정착화를 가속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화교의 경제력장악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V. 맺는 말

일본점령기(1942년~1945년)의 필리핀은 상술한바와 같이 불과 3년 반의 짧은 기간이었으나 스페인의 식민지시기(1517-1898년), 미국식민지 시기(1898-1946년)보다도 필리핀인에게 더욱 더 필리핀의 정체성과 독립을 일깨워준 시기였다. 특히 필리핀의 이방인으로서의 위치에 있던 중국인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하여 중화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으로 등장하면서 華僑가 되어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일본의 중국침략이 시작되면서 중국본토의 영향으로 반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孫文의 혁명시기에도 경제적 지원을 우선시 하였던 필리핀화교들이 일본의 필리핀 점령으로 화교들이 총을 들고 일본과 싸우는 형태로 발전한 것은 필리핀의 정착인으로서 필리핀의 위기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필리핀사회의 융합화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겠다. 즉 이들의 전투참가는 잠재해 있던 중국의 아이덴티티를 일깨워준 것은 물론 필리핀인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면서 아이러니컬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필리핀 독립 후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되었고 상인들이 기업화되고 재벌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화교들은 중국인으로서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더욱 중국인의 정체성을 고집하여 전후(제2차 대전)와 독립 후의 필리핀에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등장하여 화교의 배척운동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필리핀의 일본점령은 필리핀인으로서의 이방인인 화교가 전투에 참여하면서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관계를 인정하게 되었고 화교들은 필리핀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게 되어 중국계 필리핀인으로서의 첫 단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게 된다.

일본 점령기의 필리핀에서의 화교는 중국본토의 영향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치적 노선을 선택하여 중국 중심으로 변화되지만 중국본토가 공산화되면서 필리핀화교들은 반공노선을 택한 미국의 영향으로 대만(国民党)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중심의 기업인으로 변화된다.

### 【참고문헌】

- 박사명(1996), 식민지사회의 계급형성: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역사적 비교, 동남아시아연구 4권, 한국 동남아시아학회.
- 유인선(1990),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필리핀근대사의 성립과 전개과정” 『아세아연구』 84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덕훈(2014), 스페인령필리핀에서의 중국인의 적응과 동화, 디아스포라 학회, 제16집, 세계한상문화연구원.
- (2014), 스페인 식민지 시기의 필리핀에서의 중국계 메스티조의 등장과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24권 4호, 2014년11월.
- 菅谷成子(2000), “18世紀中葉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移民社会のカトリック化と中国系メスティーソの興隆” p439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39冊, 東京大学東洋文化研究所.
- (2005), 18世紀末葉のスペイン領マニラ : “マニラ公正証書原簿からみた植民地社会における中国人.” 『愛媛大学法文学部論集』.人文科学編 18卷.
- 南南方軍政建設の方針(1932), (南洋資料,第46号) 昭和17年4月11日
- 大東亜省(1933), 『比島独立実施ノ時期及態様ニ関スル一考察』 (昭和18年5月6日)
- 白陵(1954), 比率濱華支抗反誕生前的幹部訓練班,雁來紅1, 所收.
- 上田 敏明 著(1990), 聞き書き.フィリピン占領, 勁草書房: .3
- 松島 宣広(2011), フィリピンにおける中国人社会 : 中華総商会の役割を中心として ; Vol. 35 No. 1・2, 創価大学社会学会.
- 『昭和史の天皇』 10(2011), ,読売新聞社,.
- 池端雪浦(1975), 「フィリピンにおける日本軍政の一考察—リカルテ將軍の役割をめぐって」 『アジア研究 (アジア政経学会) 22/2 (7)
- (1994), 「フィリピンにおける現地人官僚制度の変容—スペイン体制後期を中心にして—」 石井米雄他編 『東南アジア世界の歴史的位相』 山川出版社.
- 曾梅生(1980), 英勇奮戦在呂宋島上, (非島華僑抗日風雲 所收)
- 太田弘毅(1976), 「フィリピンにおける初期の日本軍政 『政治経済史学』 122,128,129号

- (1982), 「日本軍政下フィリピンにおける各種住民対策」 『政治経済史学』 (日本政治経済史学研究所) 189.
- 告示(1932), 抗日華僑分子処断に関する件, 昭和17年 5月24日, 大日本軍司令官
- 海外在留邦人員調(1940), 比率賓年鑑, 1936-1939.
- 荒 哲(2013), 日本占領下のフィリピン・レイテ島における対日協力と対日抵抗をめぐる政治抗争. 東南アジア研究 51 卷 1 号.
- 周南京(1993), 「中国和菲律賓の歴史關係」 吳文煥編 『菲律賓与華人』 菲律賓華裔青年聯合會
- 載国揮(1980), 『華僑 - 一落地生根から落葉歸根への苦悶と矛盾』 研文出版.
- Alfred W. McCoy(1980), 'Politics by Other Means': World War II in the Western Visayas, Philippines," in Southeast Asia Under Japanese Occupation , ed. Alfred W. McCoy, Monograph Series, no. 22.(New Haven: Yale University Southeast Asian Center)
- Andrew Wilson(2004), Ambition and Identity. Chinese Merchant Elites in Colonial Manila, 1880 - 1916.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Antonio S. Tan(1981),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1942-1945, Quezon City : Published for the Asian Cente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ress.
- Bautista, Alberto Manuel (1952), The Hukbalahap Movement in the Philippines, 1942-1952, University of California
- Blaker, James R. (1970),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Power and Change, Ph.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Clark L. Alejandrino(2003), History of the 1902 Chinese Exclusion Act : American colonial transmission and deterioration of Filipino-Chinese relations. Manila : Kaisa Para Sa Kaunlaran.
- Chinben. See(1998), "Chinese Organizations and Ethnic Identity in the Philippines." In Changing Ident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hinese since World War II. Edited by Jennifer Cushman and Wang Gungwu.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David Joel. Steinberg(1967), Philippine Collaboration in World War I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 Edgar Wickberg(2000), The Chinese in Philippine Life 1850-1898.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
- Elmer Lear(1952), Collaboration in Leyte: The Philippines, under Japanese Occupa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11(2).
- George H. Weightman(1960), "The Philippine Chinese: A Cultural History of a Marginal Trading Company. Ann Arbor, Michigan: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 Grant K. Goodman(1982), The Japanese Occupation of the Philippines: successful collaboration of invading and indigenous power Elite,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Sophia university, .
- Lear ,Elmer Norton(1952), Collaboration, resistance, and liberation : a study of society and education in Leyte, the Philippines, under Japanese occup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ries publication, 3358, University Microfilms, [c]
- Li Yuk-Wai(1992), The Chinese Resistanc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Vol.23, No.2 ,

- Norman G. Owen(1974), "The Principalia in Philippine History: Kabikolan, 1790-1898", Philippine Studies Vol. 22.
- Philippine Commonwealth(1919), rice Commission Report  
QP(Rice 1919, Box504.Synopsis of Constabulary Reports)
- Rafaelita Soriano(1948). Japanese Occupation of the Philippi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Japanese Propaganda 1941-1945,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Salvador P Escoto.(2000), "A Supplement to. the Chinese Expulsion fromthe Philippines." 1764-1779. PHILIPPINE STUDIES 48(2).
- See, Chinben(1981), Chinese clanship in the Philippine setting.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12, no.1 Mar.
- Tan, A.S. (1985), Chinese Mestizos and the Formation of Filipino Nationality. In T. Cariño (ed.),Chinese in the Philippines, Manila: De La Salle University
- Teresita Ang See(1998), The Philippine-Chinese Resistance Movement: 1942-1945, Philippine Studies Vol.46 no4.
-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226(March 1943)
- The Chinese immigrants : selected writing of Professor Chinben See / edited Teresita Ang See(1992), Manila : Kaisa Para Sa Kaunlaran : Chinese Studies Program, De La Salle University,.
- The Manila Times(1919), August3, 25,September,7,8,9,11, .
- The manila Times(1919), July26, 27,.
- Trading Community1960)"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United states(1919), War Depaqrtment, Report of the governor Generalof the Philippine Islands
- Weightman, George H. (1960), The Philippine Chinese: A Cultural History of A Marginal Trading Company. Ann Arbor, Michigan: UMI Dissertation Information Service.
- Wickberg, Edgar(1962), "Early Chinese Economic Influence in the Philippines, 1850-1898" . Extract from PACIFIC AFFAIRS Fall,
- (1970), The Chinese in the Philippines History,Asia 4.18
- Yuk-wai Yung Li(1995), The Huaqiao Warriors: Chinese Resistance Movement in the Philippines, 1942-45, Hong Kong University Press, November 7,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1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 要 旨 >

日本占領下のフィリピンの華僑の適合と抵抗

李惠薰

日本占領下のフィリピンは、1942年-1945年の3年間半という短い期間であったが、この期間はスペインの植民地（1517-1898）の時代及び米国の植民地（1898-1946）の時代より一体感と独立をフィリピン人の中で呼びました。

フィリピン国内で中国人は異邦人としての位置付けであったが 1911年の辛亥革命とともに中華民国の国籍を取得した華僑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持って日本の中国侵略の後には抗日運動に参加した。孫文の革命時期まで彼らの特徴は経済的支援であったが、日本のフィリピン占領の後には華僑は軍隊と戦闘するために武器を持って日本の占領に対応した。

危機的状況に置かれたフィリピンに定着した者として戦争に参加することで、華僑はフィリピンという国家と社会の構成員としての重要な役目を担っていることを認識することとなり、中国系フィリピン人としての初期段階を受け入れざるをえない状態へと至る。

Adaptation and resistance of the overseas Chinese in the Philippines during Japanese occupation

Lee, Duk-Hoon

The Philippines existed under Japanese Occupation for only a short period of three-and-a-half years between 1942 and 1945, yet this period did more to awaken a sense of identity and independence among the Filipino than had either the eras of Spanish colonization(1517-1898) or U.S. colonization (1898-1946).

From their position as outsiders within the Philippines, the Chinese in particular acquired a distinct identity as huaqiao, citizens of the new Republic of China created with the Xinhai Revolution of 1911, and Japan's first invasions of China l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against Japan.

Though their primary emphasis as recently as the time of Sun Yat-sen's revolution had been on economic support, the Huaqiao population in the Philippines responded to Japan's occupation of the Philippines by taking up the arms to fight the invading forces. By participating in the war as residents during the Philippines's movement of crisis, they arguably took another step toward fuller assimilation into Filipino society.